『성북, 무지개와 함께』 마을잡지

우리 여기 살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야기 / 지역 내 성소수자 이슈 / 당사자 문학 / 당신이 알아둬야 할 것들 / 인터뷰 / 독자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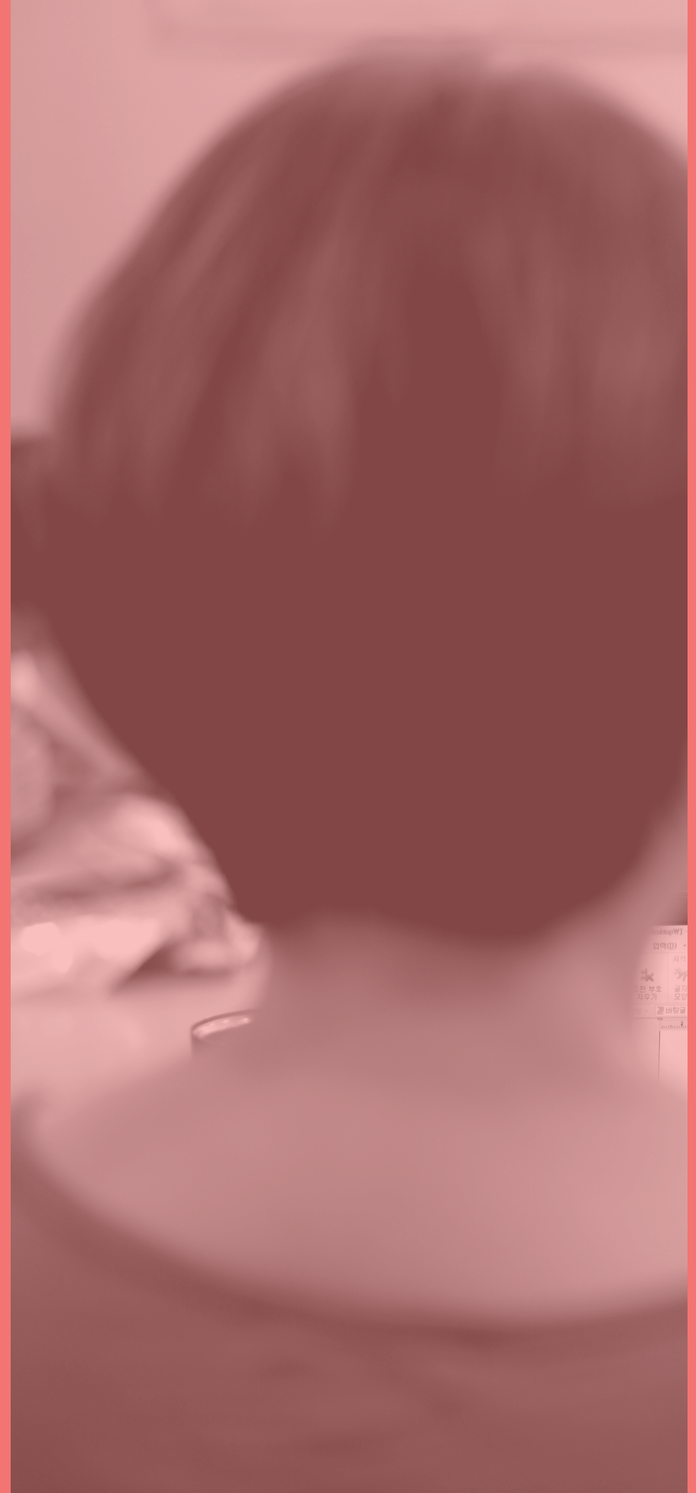
2016 vol. **1**

우리 **여기** 살誌 2016

스스로가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는 모습으로
레즈비언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좋은 변화들이니
여길 벗어나면 안 되겠어요.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이 잡지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6 마을미디어활성화 주민지원사업 지정공모분야(콘텐츠형)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 무지개와 함께』 마을잡지 vol. 1





우리 여기 살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야기 _ 02

지역 내 성소수자 이슈 _ 26

당사자 문학 _ 31

당신이 알아둬야 할 것들 _ 32

인터뷰 _ 36

독자투고 _ 50

아주 오래된 사이

글 | 도플+갱어



어디선가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꼈다. 그 바람은 옹기종기 붙어 있는 낮은 집들 사이를 거쳐 내 몸을 스쳤다. 골목길 화분의 꽃도 같이 흔들렸다. 한동안 그 곳에서 하나의 집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그렇게 두 발이 머물러있는 곳을 온몸으로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다. 마을 곳곳을 걸으며 이 공간이 내게 들어오고, 동시에 내가 이곳에 스며든다는 감각. 내게 성북동은 그런 감각을 깨워준 동네다.

성북동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순전히 사랑에 미쳐서다. 2012년의 어느 날, 혼자 지내던 정사각형 방을 나와서 무작정 그녀가 살고 있는 성북동에 짐을 부렸다. 우리가 만나고 사귀고 같이 살기로 결정한 시간이 사흘을 넘기지 않았듯, 성북동이라는 동네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까지의 시간도 사흘을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문학책 속 시 한 구절로 알고 있던 동네는 내 앞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뜨거워 추운 겨울에도 자주 걸었다. 늦은 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다음해 봄을 온전히 서로를 위해서만 동네를 걷는 일로 시간을 내었다. 우리의 사랑이 고스란히 성북동 길에 두 발로 쓰였다. 매일 새로운 고즈넉함, 포근한 설렘을 같이 찾았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내게 그녀는 혜화문 앞 언덕을 따라가는 성곽 길을 보여주었다.

까만 밤 그녀가 가리키던 언덕 맞은편 광경 속에는 다른 높이, 다른 색깔, 다른 밝기를 내뿜는 집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자이크나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로 잘 어우러졌다. 그녀의 음성이 그림에 더해져 감미로운 노래처럼 마음에 파도쳤다. 작은 불을 하나씩 품고 있는 집들, 그 풍경이 고향 바닷가 섬마을의 그것을 연상시킨다며, 자신이 이 동네로 넘어오게 된 날의 기억을 풀어내주었다.

「2011년 어느 여름 밤, 익선동에서 살던 시절에요. 매번 가회동 인근까지만 밤 산책을 하다가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좀 멀리 나가볼까 하는 맘에 낙산공원을 올라갔던 날이 있었어요. 성곽 길을 따라 걷다가 내려다보이는 풍경에 마음이 끌려 계단을 따라가게 되었고, 이어진 어느 마을로 들어갔을 때 분명 처음 오는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달빛 아래 춤추는 나무들의 그림자, 하얗게 빛나는 회벽, 그 집 문간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말소리, 어느 집 밥 짓는 냄새, 알싸한 풀 내음. 그것들이 어우러져 내 맘을 흔들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리운 곳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훅 밀려들어오는 반가움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던 그 순간, 내가 살아가고 싶었던 곳을 비로소 찾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처음 성북동 북정마을에 왔던 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삶의 마지막 순간은 여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한 곳이, 정갈한 한옥마을이 아닌 성문 밖 산마을일 줄은 몰랐죠. 성북동으로 거취를 옮긴 후엔 혼자 성북동 성당과 혜화동 성당을 오가며 함께 삶을 살아갈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나처럼 이 거리와 성곽이 있는 풍경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응답이 오는 걸 보면 이 동네에 정말 좋은 기운이 많이 흐르고 있나 봐요.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고, 스스로가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는 모습으로 — 레즈비언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 살아가는 것도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좋은 변화들이니 여길 벗어나면 안 되겠어요.」

스스로가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는 모습으로
— 레즈비언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
살아가는 것도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좋은 변화들이니
여길 벗어나면 안 되겠어요.

옅은 봄기운이 공기의 냄새를 바꾸기 시작했던 때, 그 무렵 갔던 길상사와 수연산방 또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기억이다. 흰 눈이 채 녹지 않은 자리에 초록 망울을 움트고 있던 개나리 돌담이 맘에 들어 멈추고는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읊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는 낭만적인 문장도 좋아하지만,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고 사랑의 도피처로 떠나자는 애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였다. 첫눈에 제 짝을 알아보았지만 슬픈 사랑의 운명에 시대의 비극까지 더해져 평생 서로를 그리워만한 백석과 자야.

「그리움이 가득차면 애써 비우고 그 자리에 다시 그리움이 차오르고. 다시 비우기 위

해 공양을 얼마나 드렸을까요?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영혼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닿아 있었겠지요. 애끓음을 달래느라, 서로의 건강을 바라느라 몇 번의 절을 해야 했을까요? 그 마음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둘의 사랑은 열반에 들었겠죠? 그러니 우리는 만져지는 사랑을 했으면 해요. 서로의 곁에서 함께 숨 쉬는 사랑을 했으면 해요. 멀리서 시가 되기보단 서로의 삶이 되길 바라요.」

나는 아직 가시지 않은 청량한 겨울 공기를 갈라 새기기라도 할 것처럼 선언하듯 말했다. 수연산방에서 그녀는 춘설차를 두 손에 쥐고 계속된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 차 속에 담긴 푸른 봄을 마시며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그윽이 마주보며 차를 마시는 날들이 되길 기도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 네 발을 나란히 하며 4년여의 시간을 틈틈이 동네산책에 쏟았다. 같은 사람과 같은 거리를 걸어도 질리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새롭게 느끼고 알아가는 것들이 무궁무진했다. 동네를 걸어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 심우장에서 만해 선생이 심었던 나무에 손을 대어보기도 하고, 조팝나무가 흐드러진 성북천에서 향기에 취한 채 오리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성북예술창작터의 조그만 전시공간을 독차지하듯 앉아있기도 하면서 우리는 동네에 녹아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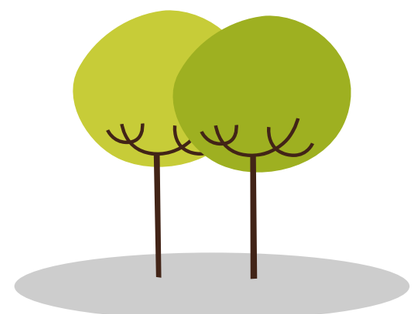
알면 알수록 그녀와 동네는 아주 오래된 사이처럼 닮아있었다. 또한 우리 사이와도 닮아있었다. 편안한 가운데 새로운 설렘, 안정감 속 넘나드는 깨우침,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왔다는 감정, 그 안락함 덕분에 불안하던 마음은 평화로운 바다를 만났다. 사랑하는 사람이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곳이며 나의 그리움의 답이기도 한 성북동을 점차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동네를 아끼는 마음으로
오래도록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로 생각해주고
편견 없이 어울려준다면
좋겠다는 소망도 생겼다.

이국적인 알프스의 마을처럼 북한산 자락의 풍경이 잘 보이는 동네. 그 바위산 아래 한 쪽에는 작은 집들이 반대쪽에는 거대한 저택들이 마주하며 조화롭게 어울리는 동네. 평화롭고 여유 있는 마을의 기운, 감싸주는 따듯한 느낌을 가진 동네를 사랑하게 된 나머지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도 떠나기 싫다고 생각했다.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동네를 아끼는 마음으로 오래도록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로 생각해주고 편견 없이 어울려준다면 좋겠다는 소망도 생겼다. 삶의 공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는 두 사람의 마음도 잘 알아주지 않을까 괜스레 기대도 해보게 되었다.

운명이 우리를 성북동에서 계속 살게 하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에게 성북동 작은 집들은 백석의 깊은 산골 마가리와 같다. 동네의 온화함을 닮았으면 하는, 언젠가는 만나고픈 우리 딸의 이름도 동네에서 영감을 받아 지었다. 우리가 성북동의 면면을 오래보고 자세히 살피고 미소를 머금으며 좋아하듯,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도 우릴 그렇게 보아주길 바란다. 남자 둘, 여자 둘, 혹은 혼자일지언정 누구든 자신이 좋아하는 마을에서 불편한 존재가 아니길, 특이해서 계속 쳐다보는 대상이 아니길 바란다. 비록 지금 서로를 반려자로 삼았어도 서류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그녀의 집에 내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유를 거짓으로 써서 제출해야 하며, 주민세도 따로 내고 있지만 말이다.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어 그에 따른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플 때 보호자로 옆에 있어줄 수도 없지만, 우리에겐 그것만큼이나 이웃들의 편견 없는 시선도 중요하다. 우리를 이질감 없이 봐 주고 산책길에 마주치면 안부를 물어주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지기를…. 모두 더불어 살고 어울려 노는 '우리 동네'라고 부를 수 있는 곳, 그런 성북동에 같이 살길 꿈꾼다.

이웃들의 편견 없는
시선도 중요하다.
우리를 이질감 없이
봐 주고
산책길에 마주치면
안부를 물어주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지기를….



도플과 갱어는 혜화동 성당에서 만나 혜화문 근처에서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플은 무대에 서고 공연을 만드는 일을, 갱어는 향긋한 차를 만들거나 대접하는 일을 합니다. 성북동 곳곳을 쏘아 다니며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이 글은 도플의 글에 갱어의 글을 입혀 마무리 지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마을결혼** 이야기



글 | 최승주 · 홍수만

온 동네 주민들이
준비를 돕고,
양가 가족들이 함께
음식과 답례품을
손수 준비했다.
하객으로 온 양가 친지보다
준비를 도와준
마을 주민이 더 많은
특이한 결혼식이었다.

2016년 4월, 노랑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정릉 교수단지의 어느 집 마당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이름 하여 정릉마을 정원결혼식, 정릉에서 열린 마을결혼식 1호다. 온 동네 주민들이 준비를 돕고, 양가 가족들이 함께 음식과 답례품을 손수 준비했다. 하객으로 온 양가 친지보다 준비를 도와준 마을 주민이 더 많은 특이한 결혼식이었다. 마을 주민들의 제안으로 치러진 정원결혼식은 당사자뿐 아니라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그 안에서 예쁜 신부보다, 활짝 핀 봄꽃보다 가장 아름답게 예식을 빛내준 것은 바로 무지개 펼침막이었다.

신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결혼과 가정이란 것 자체가 인생의 계획에 존재하지 않았던 남자였다.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결혼이 곧 결혼식은 아니며, 삶의 가치와 지향과 부합하지 않으면 기꺼이 평생 혼자 살겠다고 작정한 여자였다. 서른 후반에 동갑내기로 만나 티격태격 투닥투닥 연애를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식의 기획의도를 '모두를 위한 결혼'으로 정했다. 마을결혼식 1호의 주인공이자 신부는 이번 결혼식의 총괄 기획을 맡았다. (참고로 오는 10월에는 신랑이 총괄 기획하여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월곡동 삼태기마을에서 결혼잔치를 할 예정이었다. 마을결혼식도 흔치 않은데 심지어 결혼식을 두 번 올리는 기염을 토할 뻔했지만, 삼태기마을 회관 건립이 지연되면서 두 번째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런데 모두를 위한 결혼은 과연 무엇일까?

신랑은 마을활동가이다. 마을활동 이전에는 사회운동을 했다. 그는 거창한 소속 없이도,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살면서 스스로 터득한 삶의 가치,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할 철학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실천해 왔다. 신부도 마을활동가이다. 세상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바탕에 깔고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정치운동을 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그 자체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는 본질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에든 열린 생각을 갖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두 사람이 꼭 닮았다. 그런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지금의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진 권력과 억압, 이성애지상주의를 거부하는 남자였고, 여자도 같은 생각이었다. 사랑의 완성이 결혼 그리고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여서 더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남자와 여자는 결혼,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 기왕이면 아주 특별하게!

일단 결혼을, 결혼식을 하겠노라고 결정하고 나니 이어지는 무수한 절차들이 줄줄이 알사탕처럼 끝도 없었다. 두 사람에게 결혼 예식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결혼과 결혼식에 담아낼 우리 삶의 가치와 지향이었다.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자는 바탕에 평화, 비폭력, 존중, 배려… 이런 가치들을 모두 담아 결혼식의 기획의도를 '모두를 위한 결혼'이라고 정했다.

신랑은 2014년 마지막 날, 성북의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주민이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구청장의 집행 거부로 불용 위기에 놓였던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이 끝내 허무하게 사라지는 자리에 같이 연대하고 있었다. 마을 안에서 소수자들과 주민으로서 연대하고자 했던 두 사람은 서울프라이드영화제를 후원하고,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후원회원이기도 하다. 동성결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은 평등하며,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결혼은 그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은 사회적이기보다 매우 개인적인 일이고, 결혼의 당사자는 단지 두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깊었다. 더욱이 우리 두 사람은 적어도 법이 인정하는 이성애자 부부이니 모두를 위한 결혼이 소수자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걱정이었다. 피부미용을 위해 팩을 해도 모자랄 결혼식 전날 밤, 세수도 못한 채로 심사숙고해 결혼서약서를 완성했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목적이다.

우리는 결혼 1년 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결혼식 준비 과정을 그린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함께 보았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영원히 부정당하고 있음에 영화를 보는 내내 눈가가 시렸다. 가슴이 아팠다. 영화 안에 담겨 있는 평범한 부부의 일상. 제일 가까이에서 늘 힘이 되면서도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일상을 반복하는, 세상 모든 둘은 다 그렇게 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여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영원히 부정당하고 있음에
영화를 보는 내내
눈가가 시렸다.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언제든 공개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이성애자 부부인 우리는
더욱더 성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혐오, 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다짐했다.

서, 여자여서, 내가 남자여서, 여자여서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피흘려 증명해야 하는 것일까.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벌어진 여성 피살사건은 남성들로 하여금, 매순간 불안해하며 살 필요가 없고 하루하루 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이 엄청난 권력이고 특혜였음을 깨닫게 했다.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없이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언제든 공개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이성애자 부부인 우리는 더욱더 성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혐오, 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다짐했다.

우리의 결혼에서 '모두'는 인간의 성별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차리는 사람과 먹는 사람이 따로 있는 단순소비적인 결혼식, 단 한 시간을 위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장식들, 의미를 떠나 돈이 예의가 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두 사람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허례허식을 벗어나,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결혼식 예산은 300만원 안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몇 달간 돈을 모았다. 양가에는 가족들로만 30명 정도씩 초대해주시라 청했다. 청첩장은 신랑이 한글문서로 내용을 넣어 만들고 예쁜 한지를 사다가 출력해서 봉투와 함께 양가에 보냈다. 부모님들은 봉투에 손글씨로 주소를 써서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부쳤다. 예물은 평화의 상징을 넣은 디자인의 커플링으로 맞추고, 예복은 동대문 의류쇼핑몰을 두루 돌아보고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것으로 구입했다. 웨딩촬영은 마을 곳곳에서 동네 친구들이 찍어줬고 신부의 머리와 화장은 셀프로 했다. 음식은 신부 엄마가 김치와 잡채 등 몇 가지를 직접 해오시기로 했고, 국과 밥, 반찬 몇 종류와 과일 등은 정릉의 시장에서 샀다. 의자와 테이블, 뷔페용 식기들은 마을의 도서관과 주민센터, 그리고 교회 등에서 빌렸으며, 주차장도 교수단지 인근의 사찰에서 이용하도록 해주셨다. 이런 과정 모두에 주민들이 힘을 보탰다. 집의 정원을 열어주시고 골목에 꽃을 심고 하객들을 위해 부침개를 부쳤다. 돈을 매개로 하지 않아도 마을을 위해 각종 필요한 것들을 섭외하고 직접 날라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결혼식, 모두를 위한 결혼식이었다.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신랑은 결혼식 후에 하루 종일 땀 흘려 정원 결혼식이 열린 집 대문 위 처마를 페인트로 반짝반짝 칠해드렸다.

우리의 결혼식이 특별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라고 권하거나 나는 이렇게 했노라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알아주기를 바랐다.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꿈꿀 수조차 없는 것임을, 둘이 먹는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혼식도 가능함을, 세상을 바꾸는 것이 그리 멀리 있지 않음을.

이제 결혼 100일이(지났)다. 하나보다는 둘이 더 좋은 콩깍지 시절이지만 어려운 결혼식을 준비했더니 마치 30년 산 부부 같아졌다. 우리의 결혼 서약에 모두 증인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언하려고 한다. 사랑 그대로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응원한다.

최승주-홍수만의 결혼 서약서

저희는 오늘 어렵게 만난 인연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하며 함께 가꾸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각자가 가진 가치관, 정치적 성향, 종교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신념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관용의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2. 우리는 그 어떤 폭력에도 반대합니다. 일상의 언어 속에서부터 서로에게 상처주거나 강제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비폭력 평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이, 성별,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외모, 장애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축복해주러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차별받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차별 없는 세상을 기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4.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지속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소모하지 않으며, 함께 살아가고 살아가야할 존재들을 위해 아끼고 소중히 하겠습니다.
5. 언제나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각자의 일들로 바쁘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일상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작은 시간들을 만들겠습니다.
6. 각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며 서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최승주와 홍수만은 지역에서 활동하다 만나 결혼에 이르렀고, 「성북, 무지개와 함께」 마을잡지 관계자에게 혼인의 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그 관계자를 지지하고 평등한 결혼의 가치에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결혼식장에 무지개 현수막을 걸어준 부부이다. 여전히 변함없이 지역에서 오늘과 내일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고 있다.

어느 게이의 평범함

글 | 위버

나는 게이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커플이나 부부는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셰어 하우스이고, 하우스 메이트 중 한 명이 게이일 뿐이다.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사실 별로 쓸 말은 없다. 게이와 같이 사는 일이 뭐가 대수라고.

게이와 함께 살고 있다고 별 다른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호모포비아 성향을 갖고 있다가 게이와 같이 살면서 치료(?) 되었다거나, 갑자기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거나 하는 일따위는 없다. 사실 그렇다. 게이와 같이 사는 일이나, 이성애자 남자와 같이 사는 일에 별 다른 차이가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굳이 차이를 찾아보자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다. 무엇보다, 감각의 차이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경험한 게이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 좁은 경험을 통해, 무엇보다 게이와 함께 살면서 나는 게이 특유의 감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게이 하우스 메이트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이 분이 게이라는 걸 짐작했다. 이 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느 단체의 활동가라고 말했는데, 그 단체가 LGBT와 연관이 있는 단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 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이 분의 패션 센스가 범상치 않았다. 당시 이 분은 초록색 반바지에, 민소매를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분 손에는 우산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분홍색이었다. 그것도 장우산. 분홍색의 장우산을 들고 다니는 남자라……. '혹시?' 라는 의심이 '역시!' 라는 확신으로 넘어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뭐랄까. 게이 특유의 패션 센스라는 것은 게이 특유의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할 테다.

이성애자 남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이 특유의 감각. 무엇보다 내가 게이 하우스 메이트와 함께 살면서 피부로 가장 느끼는 것은 청결에 대한 강박이다. 지나칠 정도로 깔끔하다. 거의 결벽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가 이 집에 처음 거주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도 남자 셋이서 사는 집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주방의 청결은 물론이고,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신발을 보면서, '아,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깔끔하신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에 사는 이들이 다 깔끔한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유독 깔끔하여 집 전체가 깔끔했을 뿐이었다. 당연히도, 깔끔한 사람은 게이 하우스 메이트이다. 지금은 나와 게이 하우스 메이트 이렇게 둘이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집에는 세 명이 살았다. 한 분은 얼마 전에 이 집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게 된 이유가 감각 차이 때문이었다. 그분은 소위 '개저씨'였다. 감각이 아주 후진. 그분이 집을 나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대략 어떤 이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분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다. 어느 날, 그분이 마당에서 강아지 털을 깎았다. 돈도 많이 버는 양반이 왜 굳이 강아지 털을 자기가 깎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점이야 상관없었다. 문제는, 강아지 털을 깎은 이후에 마당에 털을 흩뿌려 놨다는 것이다. 내가 털을 치우라고 말하자, 그분은 "그걸 왜 치워? 바람에 흩날릴텐데."라고 대답했다. '뭐라고, 시옷비읍아?' 욕이 혀끝까지 맴돌았지만, 나는 "그래요, 냅둬요."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말한다고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이건 일례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 생각하여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냥저냥 넘어갔다. 굳이 충돌해봐야 좋을 게 없는 것도 그렇고, 나보다 더 오랫동안 그분과 같이 살았던 게이 하우스 메이트가 별 달리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눈에 거슬리는 점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도 그걸 말하고 교정시키려 하려 하지 않았다. 어차피 안 될 걸 알아서 그랬는지 눈에 거슬리는 것은 그냥 본인이 직접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했던 생각은, 게이 특유의 감각이라는 것이 이성애자 남자의 감각에 비해 아무래도 더 선하고 부드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 점 때문에 본인의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감각이 나에게는 더 옳은 감각이라 여겨졌다. 물론, 이 점은 게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내가 경험한 몇몇 게이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았다. 이성애자 남자 특유의 후진 감각들보다 아무래도 게이들의 감각이 더 좋은 것 같았다. 나로서는 말이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다.

"그럼 너는?"

나? 글쎄. 나는 뭘까. 그걸 굳이 당신에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당신이 알아서 생각해보시기를.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게이 특유의 감각이 아무래도 이성애자 남자의 감각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그렇다고 그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니긴 하다. 게이가 뭐 별 대수라고.

게이와 같이 사는 일이
뭐가 대수라고

게이와 함께 살고 있다고
별 다른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위버는 문화연구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 올해 석사학위 논문을 마쳤고, 지금은 놀(다가 일하다가 쉬)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문화평론을 쓰고, 어느 좌파 시민단체의 병설기관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 스케치 :

성북구 청년·대학생 성소수자 집담회

편집·재구성 | 편집부

보통 지역에서, 학생 또는 청년은 지금 잠시 머무를 뿐 졸업하면 떠날 임시적이고 유동적인 존재로 인식됩니다. 여기에 성소수자 정체성이 더해지면 유령처럼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학생·청년 당사자가 아닌 주민 입장에서 성북구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성소수자 학생·청년들과 지역 혹은 주민 사이의 연결 고리나 접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대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생활하면서 거주지 마련, 지역 상권 이용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만나며,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관계 맺고 소비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호명되지 않는 학생·청년 성소수자들은 어떤 눈으로 동네를 바라보고 또 지역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집담회를 통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정욜(사회자) 먼저 참석하시는 분들 소개부터 들어보죠. 성북구 어느 동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깡통 저는 깡통이라고 하고요. 성북구에서 작년에 일을 했었고, 이전에 성북구에서 살았거든요. 성북구에서 첫 연애를 하면서 애인과 같이 살다가, 헤어지고 동네가 지긋지긋해지니깐 다른 곳으로 갔다가 지금은 불광동에 살고 있어요. 작년에 성북구에서 활동한 뒤로 또 계속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했습니다.

주호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지금 성북마을무지개가 간행하는 마을잡지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북동에서 결혼생활 하고 있어요.(웃음)

기민 이 결혼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부럽네요. 저도 같은 성북동에 살고 있고요. 성북마을무지개 회원이고요. 마을잡지 간행사업에 약간 욕심을 갖고 밀어붙여서 올해 사업추진을 맡게 된 운영담당자 김기민이라고 합니다.

지성 안녕하세요. 저도 <성북, 무지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있고요. 저는 성북구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고요. 어떻게 그 정릉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오래전에 되는 바람에 사는 것도 계속 여기 성북구를 떠나지 못하고 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살기도 했지만 특히나 지금 동네와 성소수자 운동을 결합해서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띵동이 성북구에 오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말만, 무늬만 인권도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사건들이나 사람들을 계기로 소수자와 성소수자 친화적인 마을로 좀 변화되는데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지성입니다.

현진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구 정릉동에 살고 있고요. 저는 겁도 없이 편집을 하겠다고 올해 초에 말을 혹 던져가지고 편집디자이너로 와 있고요. 동네에서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일을 하는데요. 축제, 장터, 기타 등등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문화다양성, 상호작용 문화를, 성북구가 진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은 편집디자이너면서 원고 독촉자로 왔어요. 제 이름은 박현진입니다.

순부 저는 대학 성소수자 모임연대 QUV에서 활동하는 권순부라고 하고요.저희 QUV는 48~50개 대학 성소수자 운동 연대체입니다. 저는 사실 성북구엔 없지만 오늘 이 자리를 성북마을무지개와 공동주최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대 사람과사람에서도 오셨고, 한예종에서도 오고 계시는데 좀 늦으신다고. 성북구에 다른 학교도 많이 있는데 참여하시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오시는 분이 좀 적다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강 저도 QUV에서 활동하고 있고, 성공회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성북구는 아닌데, 궁금해서 놀러 왔고요.

정욜 뭐 있지 않았을까요. 성북구에 애인이 있었다던가.

한강 뭐 성북구는 몇 번 안 와봐서.

정욜 인연은 없는 걸로.

한강 인연은 없는데 오늘 많은 이야기 듣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한강입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를 안암동에서 하고 있고요. 고대 '사람과사람'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A입니다.

B 저도 고대 '사람과사람'에서 활동하고 있는 B라고 합니다. 자취는 안 하지만 거의 학교에 눌러 붙어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C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에 다니고 있고 '사람과사람'에서 활동하고 있는 C라고 합니다.

D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에서 활동하고 있는 D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성북구에 살고 있진 않지만 학교 근처에서만 바라보다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참여 단체 소개

정욜 성북구에 꽤 많은 인구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도 제일 많은 동네라고 해요. 전에 성신여대 다녔던 운영자를 우연히 만나서 같이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요. 학교 모임들이 대개 다 있죠? 성북구



중심으로 QUV의 현황에 대해서 의장님이 잠깐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부(QUV 의장) 성북구에서는 한성대가 저희 50번째 모임으로 들어왔고요. 고대 사람과사람, 한예종 프리즘, 성신여대 큐리스탈, 동덕여대 코튼캔디, 국민대 2KM 등이 있습니다. 요즘 각 대학가에서 성소수자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커지는 상황이에요. 학교 측이나 외부의 반동도 그만큼 거센 것이 사실이지만, 대학가에서는 다 모여 있는, 특히 성북구에도 학교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제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정욜 사실 '사람과사람'에서 잡지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마포구 중심으로 뭐 선거대응이라든가 마포구에 거주를 많이 하니깐 지역 운동도 있었고 또 지역운동까지는 아니지만 밥상모임이나 거주자 모임 같은, 나름의 자치 모임이 있었는데 요즘 좀 잠잠해지는 거 같아요. 근데 성북구가 다크호스로 나타나서 상처를 딛고 잡지를 만들어보겠다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집담회가 열리는 거예요. 사실 '사람과사람'이 잡지를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학내에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매체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마을 잡지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간담회 내용도 좀 담기고 각자 쓴 글이라든가 청탁한 글이 담겨 나온다는 걸 보면 첫 시작으로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같이 나눠주면서 인사하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과사람' 잡지는 언제 나오나요?

C(사람과사람) 저희 10월 말에 나와요.

정욜 혹시 잡지에 대해서 '사람과사람' 잡지의 역사와 전통, 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D(사람과사람) 이제 저희 '사람과사람'에서 매년 2학기 때 사업으로 하는 것 중 하나가 <퀴어가이드>라고 성소수자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잡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성소수자 학우들과 소통하려는 목적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데 이 동아리 존재를 잘 모르고 있거나, 있는 건 아는데 가입을 주저하는 학우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인지시켜주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15호 만들었고 올해 16호 만들고 있습니다. 16년째이고요. 7월 중순부터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은 글 모아서 편집하는 단계에 있고 10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 천 부 정도 뽑고 있습니다.

정욜 다 소진하나요? 어떻게 배포하는 지 궁금하네요.

D 사실 배포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건물마다 저희 학교 안에 교지나 고대신문 이런 데에서 내놓은 배포대가 있어요. 특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주의 교지인 석순에 자주 부탁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러진 않는데 2~3년 전만해도 기독교 동아리 같은 경우는 뭉텅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학기 말에 나오면 한번 쫙 배포했다가 학기 중에 했다가 하고 있긴 한데 잘 안 되죠. 많이 쌓이고 있어요.

깡통 그 내용이 좀 궁금해요. 이대에서도 그렇고 잡지를 만들잖아요. 담론이나 논쟁거리들이 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대에서 나오는 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잡지를 만드는 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D 주로 소위 우리가 글 받을 때 대부분 들어오는 게 연애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편집을 하면서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건 LGBTQ 모든 소수자 글을 다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동아리에는 그게 부합되는 분들이 다 있어서 다 받고 있어요. 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했던 것이 '내가 어떤 형을 좋아했다, 연애했다, 누구를 사랑하고 연애하고 끝났다.'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글을 쓰긴



하는데 단순하게 바이섹슈얼로서 누구를 좋아하는 걸 따지는 것만이 아닌 글을, 많이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소수자 내에서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는데, 주체적 의미에 대해서 많이 쓰려 해요. 동아리 소개나 그런 걸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B(사람과사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집해서 그런 글을 싣는 파트도 기획하고 있어요.

성북구 맛집 추천

정욜 화제를 바꿔서, 청년·대학생들 함께 성북구에서 자기만의 맛집 한 군데씩 추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수대로 하면 10군데는 나올 거잖아요. 우리 안암동부터 시작해볼까요. 굉장히 맛있는 양꼬치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A(사람과사람) 아. 네 미각이라고.

정욜 혹시 다른 곳이 또 있나요?

D 인도카레집 있어요. 일요일마다 뷔페를 하는데 만원이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름은 '오샬'이에요.

정욜 지성님, 혹시 추천해주실 곳이 있나요. 정릉동 굳이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지성 정릉에는 제가 술 먹은 다음날 꼭 가는 콩나물국밥집 4천원인데 맛있고 싸고. 이름은 전주 콩나물 국밥인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다른 곳은 콩나물 국밥을 8천원에 팔더라고요. 정릉3동 성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정욜 이야기하는 사이에 오신 분이 계신데, 잠시 소개 들어볼까요.

E(프리즘) 늦어서 죄송하고 한예종 성소수자 동아리 '프리즘'에서 활동 중인 E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욜 '프리즘' 잠시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E '프리즘'은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1년인가 2년 후에 정식 동아리 승인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최근까지는 별 활동이 없었고 이번 해부터 동아리 부스도 열고 하면서 시작된 거 같은 동아리예요.

정욜 정식 동아리로 인정받은 건가요?

E 네.

정욜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음, 조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혹시 한성대 입구 사거리에 한옥들이 있는 곳 아세요? 그 쪽으로 가 볼일은 많이 없으시죠. 그쪽에 낡은 한옥길이 많이 있는데 그 부근 뒷길로 가면 수제 맥주집이 정말 맛있는 피자에다가.

성북마을무지개 일동 섭(sub)이요. 섭!!!!!

정욜 그리고 나폴레옹 제과점 비싸지만 맛있어요. 제가 거기서 일했었거든요. 오래 전 얘기지만 좋은 재료 쓰고 비싼가격을 하더라고요. 혹시 맛집 추천해줄 곳이 있다면 더 한번 얘기를, 지금은 떠나셨지만 깡통님 정릉3동 말고 있나요?

깡통 제가 고대 쪽에 알아요. 혹시 물회 좋아하세요? 고대 앞쪽에 물회집이 있더라고요. 엄청 엄청 맵고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매워가지고 숙취를 잊는 맛인데 지금 가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성 이름을 알아야죠

깡통 안 먹으러 가실 거 같아요. (일동 웃음)

내가 다니는 학교 혹은 거주하는 동네에서 성소수자로 산다는 것

정욜 오늘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에서 사실 우리가 대학도 지역으로 포함이 된다면, 아까 학교에서 잡지를 배포할 때도 여러 에피소드가 있고 교회동아리와 마찰이 생기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성북구 지역도 그렇고, 지역 안에서 성소수자로서 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 같아요. 좋았던 적도 있을 것 같고 안 좋았던 적도 있을 거 같고. 그런 얘기를 개인 기준으로 여러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학교생활 괜찮으신가요? '사람과사람' 동아리 구성원은 몇 명이에요?

D 저희가 명부상으로는 150명 정도 있고 근데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50~60명 정도.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성 동아리 등록한 건 언제쯤이었는지?

C 동아리가 만들어진지는 21년 됐고요. 정 동아리는 2003년 3월 말에 됐으니까 정식 인준된 건 13년 됐고요.

현진 지난 잡지도 실물로 받아 볼 방법이?

C 저희 재고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욜 배포가 잘 안된 거예요?

C 저번 학기에 나오고 나서 배포를 하려고 했는데 배포만 쫙 하고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거를 학기 시작하면 짬짬이 돌리자고 했는데 6월까지 갔죠.

D 일단 인력이 많이 들다 보니깐.

정욜 근데 기억이 맞는다면 축제 때도 뭐 하셨던 거 같고, 막 레인보우 쪽에서 뭐 갖다 달라고 해서 배송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D 동아리 박람회 때 했어요.



정욜 그런 거 할 때는 동아리 잡지들이 많이 배포가 되나요?

C 네. 제가 그때 동아리 박람회 때 얼굴 까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판넬도 있었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깐 배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결국 가져가긴 했는데 몇 분 가져가시고.

정욜 얼굴 공개 하셨나 봐요?

C 네 학교에서는.

지성 한예종 '프리즘'의 경우 이제 막 인준이 되었다면, 고대는 오래 되었죠. 사실 동아리를 등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성소수자 동아리는 그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던데. 아마 그래서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E 사실 저도 1학년이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역사는 잘 모르는데 지금은 활동 가능한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약간 가시화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동아리가 있구나, 그 정도.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냥 동아리 다니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동아리 명부에는 있는데 뭐 학교 사람들은 모른다든가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성 공간은 나왔어요?

E 네.

정율 많이 모여요?

E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고, 사실 작년까진 활동도 거의 안 하고 잠잠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야 뭘 하기 시작했고요.

순부 동아리 형태가 뭐 정식 동아리로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요. 가동아리로 정식 동아리 지위 없이 그냥 자발적인 결사정도로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님 아예 총학 산하에 특별기구라든지 자치 기구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 측이 아예 동아리 인가를 안 해준다든지 공간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학내에서도 성소수자 동아리가 주관하는 행사를 탄압한다든지, 특히 기독교 학교일 경우 더 심합니다. 총신대나 숭실대의 경우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탄압을 했던 사례가 있죠. 총신대에선 영화제가 취소가 된 적이 있었고, 숭실대에선 성소수자 모임 진상조사 한답시고 이반 검열을 하고 있고. 퀴어 축제 때 총신대 총장, 총학생회장, 신학대학원 뭐 이렇게 트럭 가지고 나와서 혐오발언하고 고소고발 조치하겠다고 엄벌을 놓기도 하고. 그런 것이 개신교 학교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대학가에서 성소수자 동아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죠.

지성 근데 그거 불법이죠. 그렇게 하는 게.

순부 그러니깐 그 사람들은 사칭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다 알아보고는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럽죠.

정율 학교가 그렇게 나오면 학교 내에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고대는 어때요. 동아리 박람회 하면 괜찮나요. 거기도 CCC부터 엄청날 거 같은데. 학교가 클수록 막강한가요?

C 사례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닌데. 작년 저희 영화제 학교에서 대관을 불허할 뻔 했는데 이제 자꾸 안 해주려고 해서 저희 동아리랑 총학생회랑 동아리 연합회랑 연대를 해서 학교 측과 면담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결국 뚫었죠. 그때 학교가 변명을 하기로는 다른 대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업무가 안 된다, 너희가 양해를 해달라고 회유 아닌 회유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 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지성 실제로 외부에서 뭐가 왔던 거예요? 고대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깐 그걸 누가 알고 굳이?

C 저희 동아리는 아닌 걸로 아는데 사범대쪽에서 성소수자인권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데 학사지원 쪽으로 기독교에서 하루 종일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율 그랬을 거 같아요. 우리 교회 많은 성북구도 사연이 많죠. 대표적으로 정리해주실까요?

기민 주민참여예산 이후로 분위기가 확실히 경직돼 가는 거 같기는 해요. 작년인가 교회에서 반동성애포럼 같은 걸 열었는데 성북구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했더라고요. 저희 성북동에 덕수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공동주최를 했어요. 그 포럼이 실제 교회 안 예배당에서 해서 제가 들으러 갔는데. 아시다시피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들과 헛소리와 개소리를 총망라한. 근데 예배당 안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경청하면서 열심히 듣고 하는 모습을 보니깐, 그 전에는 반대집회 경우 퀴어문화축제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포럼 같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누가 들으러 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들으러 가더라고요. 심지어 열심히 듣고 있고 내면화하고 있고, 그렇게 들은 내용을 자기 자녀들, 친구들 그 자기 주변 신도들에게 전파하고 다니겠죠. 그걸 보면서 무서웠던 거 같아요. 활동하면서 혐오세력에 대해서 무섭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대개 열심히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걸 보니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걸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깐 무서운 거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일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성 또 올해 총선 전에 그 미아리 고개 이런 곳에서 이런 교회가 반이슬람, 반동성애 플랜카드 해가지고 서명 받고 그런 것도 봤고요. 롯데아파트 미아점 앞에서.

E 저는 돌곶이역에서 학교를 통학을 하는데, 어느 날 돌곶이역 앞에서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반동성애 서명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냥 가니깐 뒤에서 뭐라 뭐라 하고. 사람이 많진 않아서 무섭진 않았는데 굉장히 불쾌했어요.

정율 2014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이 불용됐잖아요. 성북구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위한 예산이 집행되려고 했던 건데. 성북구에 이 교회의 힘이 굉장하대요. 그래서 자치구를 흔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외지역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교회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북구 내에서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라도 더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계속된 양해 요구. 너희들이 더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대 영화제 개최할 때 학교 측에서 보내 준 태도랑, 너희가 틀린 건 아닌데 좀 이번엔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다음을 기약해보자라든가, 계속 회유를 하고 양보를 구하는 방식인 거죠. 맞긴 맞지만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태도들을 요즘 동네에서 많이 보는 거 같고. 그럼에도 다니는 대학,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버티며 이 지역과 성소수자가 만나는 상상을 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학교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

정율 어떠세요. 이 마을 잡지를 만드는 것도 약간 그런 상상에서 나온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마냥 동네에서 정체성을 늘 드러내놓고 사는 건 아니지만,



동네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사는 건 어떤 걸까 고민이 되는 것 같고. 이 마을 잡지를 만들어서 어디다 써야 될까 고민도 들고, 돌아다니며 지역주민에게 배포를 하면 그 사람 사고가 바뀌는 건가. 동네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대학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 지금 고민하는 것과 과거에 고민했던 것, 그런 게 있다면 나누면 좋겠습니다.

깡통 저는 생각했던 게 그런 게 있는데. 종로3가가 있고 이태원이 있고 또 홍대가 있고 마포, 연남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곳에 가면 자연스레 편해지는 기분이 있잖아요. 왜 그곳에 가서야 편해져야 되는 걸까. 또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또 길에 가면 보이잖아요. "3시 방향 3시 방향." (웃음) 사실 동네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 대개 열려져 있는 특정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비슷한 사람들, 말을 건네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큰 힘이 될 거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 모임들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마포에서 집값이 오르니깐 밀려난 애들은 은평에서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은평에서 모임이 생기고.

그래서 대학교라면 또 얼마나 혈기왕성한 시기인데 눈에 많이 들어올까. 근데 이제 또 사실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잖아요. '걸커(걸어다니는 커밍아웃)'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보통 안 그러잖아요. 누가 잡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때는 마치 이게 커밍아웃과 같은 말일 거 같아요. "혹시 너도?" 이런 의심을 받거나 이런 게 있는데, 꼭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지지하는, 혹은 나와 같은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훨씬 그 행동들을 받쳐줄 백그라운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감정들을 학교에서 느낄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고.

한예종은 좀 자유로운 학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강사가 혐오발언 했잖아요. 어디가 안전할까. 동네에선 편하게 지내고 싶고. 사실 잠만 잔다고 하지만 맨날 여자 둘이, 매번 드나드는데 막 둘이 꽁냥꽁냥하고 주변 옆집에서 들으면 어떤 생각할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 결혼했냐, 애인 있냐, 남자친구 있냐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상황에서 어떤 대처법을 가지고 지내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욜 일단은 한예종에 대한 오해를. 자유로울 거 같다는.

E 그건 약간 한예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것 같고. 실제로 얼마나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성차별적이거나 소수자 혐오발언들을 자연스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과마다 성향이 다르긴 한데요. 어떤 과의 경우에는 군기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거랑 연계가 돼서 그 집단이 주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제가 다른 대학을 안 가봐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한예종도 만만치 않게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정욜 선후배 문화가 세면 셀수록 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 과 특성에 따라서는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세고 학생과 교수의 관계가 주종적이고 그래서.

정욜 다른 분 같은 경우는. B님은 어때요.

B 교수님 관련 얘기를 하자면 저희 고대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혐오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다른 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대자보로 응대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계속 끊이지 않고 있으니깐. 저희는 또 모니터링 부를 따로 둬서 대학 내 차별발언을 제보를 받아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대응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욜 이전보다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나요? 전에도 있었겠지만. 주로 어떤 차별발언은 하나요?

B 최근에 나왔던 발언 중에 울산이 돈이 많아져서 게이바 같은 이상한 사업을 하고 다닌다.

정욜 (순부)의장님 대응이 필요할 거 같은데. 막 가져다 붙이는.

C 그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 발언 말고도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여성 차별이라든지 이주민 차별이라든지 온갖 혐오발언을 강당에서 쏟아내고 있으셔서, 결국에는 기말고사 시험장에서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이상한 식으로 했어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이상한 식으로 학문을 해석하면서 자기 발언은 정당하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걸로 하셨대요. 그때 대책위 차원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런 혐오발언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사회층위에서 조직을 만들자고 해서 학생 소수자 인권 위원회를, 이름은 안 정해졌지만 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욜 이건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

C 거기 여러 분들이 있으세요. 이주민 단체에서도 오시고 장애인 인권위에서도 오시고.

정욜 여하튼 소위 운동권 용어로 반동도 커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고맙기도 하고, 또 그런 중에도 그런 거까지 대응하려면 짜증이 날수도 있을 거 같아요. 울산에 돈이 많아서 게이바가 많아진다, 이런 거는 정말, 나는 사실 잘 상상이 안 가요. 나는 지역운동을 상상을 잘 안 해본 사람이에요. 내 삶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돈에 맞춰지는 대로 뭐 어느 날엔 마포에 살았다가 월세 오른다, 그러면 강서에 살다가 애인이 여기 산다, 그러면 합쳤다가 헤어지면 다른 곳 갔다가. 서울이 내 집인 것처럼 어느 한 곳에 터를 잡는다는 게, 저한테는 지금도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냥 성소수자 분들을 성북구에 있는 띵동에서 만나는 거지. 띵동이 반드시 성북구에만 있을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지역 안에서 성북구에 지성 님처럼 마을 운동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친화적인 지역 주민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런 게, 여기 처음 왔었을 때 매우 매력적이더라고요. 물론 반면에 간과하는 것도 있고, 뭔가 여전히 어렵고 부정적인 건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자리는 기분 좋





게 가거나 애기를 나누는 것도 많이 있어서, 사실 학교 축제하고 마을 축제하고는 같은 성북구에 있어도 거리감이 있는데, 이후에 학교에서 동아리 축제를 한다든가 성북마을무지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무언가 잡지를 넘어서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해요. 학교하고 지역하고 만나는, 재미난 것을 마련해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한편으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퀴어 가이드 10월에 배포한다니까 저희가 쭉 가서 단과대마다 하나씩 맡아가지고 돌리죠 뭐. (웃음)괜찮나요?

사람과사람 일동 네

정율 현수막 같은 것도 붙여줄 수 있는데. 성북 퀴어 가이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정릉동 00 마을 주민들이. 괜찮나요? (박수) 우리 센 주민들이 기독교 동아리까지 다 커버해드리는 순회로 가보는 것도 10월에 진짜 하면 재미있을 거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다면 뚜렷하지 않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어떠세요? 성북마을무지개에 계신 분들은 잡지를 통해서 만나기는 하는데 지역 안에서 뭔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마을 운동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정체성으로 마을 주민들을 만난다는 거, 한편으로 저는 어렵기도 하고 상상이 잘 안 돼서... 그런 좋은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은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불편한 거라든가 안 좋은 것만 제가 너무 나열을 해가지고. 이런 거 좋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기민 전 오픈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감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깐. 하다 보니 자연스레 알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직접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생기고, 다른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접촉할 때도 페이스북 같은 것도 연결되어 있으니깐 제가 직접 얘기를 안 해도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됐든, 어떻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진 페이스북 친구를 끊는다든지 오프라인으로 만났는데 시선을 외면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만나는 지역 활동가나 주민들 가운데 10% 정도는 이런 얘기를 밀접하게 얘기하고 공유하고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이고, 40% 정도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꺼내지만 언급을 했을 때도 회피를 안 하는. 나머지는 50%는 아직 모르는 거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관계가 생기니깐 제가 성소수자라는 걸 알고 게이라는 걸 아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딱히 그런 감수성이 없더라도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련 지식이 없어도 이 발언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겠다는 감이 동물적으로 오잖아요. 그런 정도의 조심을 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소수자들에게 위협이 된다든가 상처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로 해준다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 이성애자지만 동료 시민으로서 분개한다든가 공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경험이 축적되니깐 점점 지역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지 않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는 거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공감 받는 게 많았던 거 같아요.

정율 사실 아까 전에 일 하면서는 많이 부딪치지만 성북 주민들이 그래도 가깝게 이 동에서 성소수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 지 아시잖아요. 이게 그들에게는 큰 사건으로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마을 운동을 하니까, 성소수자 예산이 불용이 되고 성북구청 앞에 교회가 집단적으로 와서 구청장 거의 멱살 잡고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대면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교회 관계자들과 미친 듯이 싸운 유일한 구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민원이라는 말을, 교회랑 부딪치면서 성북구 안에서 항상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교회 사람들 민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민원에 항상 인권이 밀려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청장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실 성북구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거 한번 우리 안에서 뭐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한번 하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 할 것들을 쭉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구청장 영배 아저씨에게 하고 싶은 말.

기민 해주시면 정리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웃음)

순부 '사람과사람' 퀴어영화제 와서 축사하시라고 해요. 동문이라고 하면서.

기민 150명 회원 중에 100명이 주민 등록했다, 그럼 옵니다.

순부 한 200명 오지 않아요?

사람과사람 영화제 하면 200명, 250명.

순부 그러면 축사 자리 한번 불러주면 좋지.

깡통 정릉 시장에 와서 노래도 불렀거든요. 근데 주민으로 인식되는 거죠. 성북구 주민으로서. 근데 학생은 경유하는 사람으로 인지 되니까 학교와 학생에겐 이상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은 딱히 아니지만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연애하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니깐.

한강 쉽게 무시 못 할 거 같은데. 대학생을 지역주민으로 욕심이…

현진 '사람과사람' 동아리에서 15호 나오고 있으면 지역 도서관에 놓으면 좋겠네요. 월곡동 성북정보도서관 내에 성북다문화도서관을 개관했는데, 내부에 가보면 성북 지역 학이라고 해서 기념비 책이 꽂혀 있어요. 각 나라들의 이주 여성들이나 노동자들 잡지 소식지가 꽂혀 있어요. 그 중에 성소수자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사람'이 발행한 지난 과거 호를 다 모아서 비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민 주민센터에 비치해도 될 거예요. 각 동 주민센터 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공간 한 쪽에 터가 마련돼 있고 마을문고 형태로 도서나 간행물들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찾아보면 지역에서 퀴어가이드 꽂아 둘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을 거예요.

정율 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기민 성북구에 구립도서관이 9개 있어요. 규모는 다 상이한데 가장 큰 규모는 성북정보도서관이랑 아리랑정보도서관이에요.

정율 근데 비치해두면 정말 좋겠네요. 접근성도 좋아지는 거니깐. 학교 밖으로 나가서 지역에.

기민 확실히 그런 곳들이 비성소수자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좋은 장소고, 거기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성 정말 좋을 듯합니다. 도서관에 비치하는 거. 우리 잡지도 나오면 그렇게 하고. 고대나 다른 성소수자 동아리



성북구 안에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중요한 대학 동아리들의 간행물을 비치하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 도서관을 꽤 이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또 물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아예 소스가 없는 게 아니니까. 물론 그런 게 있고 장기적으로 아예 퀴어 섹션 이런 거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꼭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잡지가 나오니깐 같이 해서.

정욜 인권도서관이 이 건물(안암동주민센터, 성북구 인권청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걸로.

현진 다양한 잡지들이 비치돼 있는 곳을 찾아서. 16호까지 1년에 한번 나오는 건데 16년 지속됐다면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사장되지 않게 지역에 잘 비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욜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우리가 전달해주거나 때론 있으면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깡통 잡지에서 코너를 만듭니다.

정욜 잡지가 먼저 나오나요?

기민 목표가 9월이긴 한데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엔 저희도 발행을 해요. 아니 해야만 해요. 사업 기간이 11월 말까지라.

지성 동네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장소나 사람을 찾는 거 좋잖아요. 공감과 환대라는 이런 섹션으로 해놓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공간은 또 그 나름대로 맛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성북구 내에 게이다가 발동하는 곳이나 좀 친화적이다 약간 그런 곳이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순부 많아요.

지성 성북구에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늘 교회 같은 곳은 없겠죠?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회.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도 많이 다니는 마포에 있는 섬돌향린교회 같은.

정욜 성공회 성북 나눔의 집은 신부님들이 공개적으로까진 아니지만 굉장히 포용력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성북구엔 대형 교회들이 워낙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마무리

정욜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런 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연락처 교환이에요. 그래야 10월에 딱 만나서 서로 현수막도 걸어 주고. 같이 파티도 하고. 영배 아저씨한테 얘기할 거, 다 건네주고 할 수 있거든요. 의장님 통해서 했지만 두 분이 서로 연락처 교환하면 그게 오늘의 성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각자 좀 연락처 교환을 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자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집담회는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미트쉐어의 지원을 받아 열렸습니다. 집담회를 함께 열어 주신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모임 개최와 잡지 간행을 지원해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그리고 집담회 장소를 제공해 준 안암동주민센터에 감사드립니다.

—

원고의 초고는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콘텐츠 기록자 김지민 활동가가 작성해주었으며, QUV 및 참여 당사자들의 감수를 받아 편집위원회가 초고 내용을 편집/재구성하였습니다. 내용 상에 오류나 잘못된 표기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편집위원회의 책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인권도시 성북을 기대하며

지난 2년 동안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가 운영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글 | 정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운영위원장)

매주 금요일이 되면 성북구 동소문동에 위치한 띵동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상담을 체크하고, 회의도 하고, 가끔은 사무실을 방문한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밥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천장에서 무지개 빛이 내리는 그곳에 들어서면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지만, 20평 남짓한 그 공간을 벗어나기라도 하면 온몸에 긴장감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문역보다는 한성대입구역에 내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보문역에 내려서 올 때는 꼭 성북구청 앞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면 구청 앞 편의점 근처에서 담배를 하나 피우고 남은 길을 마저 가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잡는 거지요.

지금은 조용하기만 한 구청 앞 정문은 2년 전 '인권도시' 성북이 시험대에 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구청 앞은, 이곳이 동성애 도시가 되는 것을 막겠다며 소리 지르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사업이 성북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현장에서 '인권도시' 성북의 약속은 무기력하기만 했고, 구청은 오히려 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에게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그 앞을 지나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뱉던 이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그곳을 지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인권도시 성북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인권 잔혹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인권조례안을 제시한 이후, 인권조례가 우후죽순 제정되었습니다. 인권증진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아 인권전문가들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지역 주민들의 인권의식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거나,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알아가거나,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경험을 덧붙이자면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직후 정책 워크숍(2012년 7월24일 개최)에 찾아가 발언을 하거나, 성북주민인권선언이 선포되는 자리(2013년 12월10일 개최)에 박수를 치기 위해 직접 참여하거나,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 여러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었지만 인권도시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인권 잔혹사를 경험하면서부터는 인권도시의 '인권'에 의문이 생겼고, 각 도시들이 원하는 인권이 무엇이고 인권도시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불용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주민에 의해 제안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습니다.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하고, 상담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와 지역에 보급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높이는 캠페인을 지역에서 진행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입니다. 5천 9백만 원이라는 국가 예산이 성북에 배정되어 연내에 사업을 진행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 일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고 끝내 불발되었습니다.

2014년 12월31일 사업예산이 최종 불용되기 전까지 약 1년 간,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제안자와 함께 성북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북구청장과 담당부서로부터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원을 받는다는 하소연을 수차례 들어야 했고, 담당을 맡지 않으려고 이 사업을 서로 미루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성소수자와 무지개라는 단어가 모두 삭제된 사업 변경안을 제안받기도 하였고, 심지어 청소년이라는 단어마저 삭제된 사업계획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부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실태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상담도 들어온 적이 없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등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변명 같은 이유를 무수히도 들어야 했습니다. 예산이 불용되고 나서 성북구가 민원에 대응한 답변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성소수자 혐오선동의 압력이라면 충분히 무시되고 엎어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하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15년 한 해는 이 사건의 후속조치를 위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신)가 구성되어 참여했고, 특별위원회는 후속조치 이행을 권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인권위원회는 2015년 5월27일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예산 불용 사태





차별은 더 많이 발견되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인권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숨겨야 하는 차별 요소와 유보해야 하는 존엄을 더 많이 확인하는 듯합니다.

에 대한 권고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15 문화다양성 확산을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성북구 인권센터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2015년 9월 성북문화재단과 연구계약을 체결한 이후 10월부터 청소년 성소수자(성북지역 중심) 인터뷰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금을 받을 때의 통상의 관례 상 지원처인 성북문화재단을 명기하였습니다. 홍보를 시작하자마자 성북문화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웹 홍보물에 성북문화재단 지원이 표기되어 있어 자신들이 교회 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다고 저에게 항의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결국 홍보를 중단했고, 연구팀과 성북문화재단 관계자, 성북구 인권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미팅 자리에서 이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논의하였습니다.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이 연구를 지원한다는 사실이 연구의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진행 후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연구팀에서는 그 요구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15년 11월 연구사업 중도포기 계약 요청서를 성북문화재단에 전달하였고, 지원금도 모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성북구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은 여전히 미적지근합니다.

성소수자 인권 잔혹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될 것처럼 추진하다 혐오라는 걸림돌을 만났을 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과 난동을 찬반 여론의 '민원'으로 판단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권도시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인권선언, 인권헌장이라도 더 제정해보려고 한 지역에서 '갈등'이 생겼고, 혐오세력의 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로 성소수자 인권에 양보를 강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잔혹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책임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권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혐오라는 암초를 만났고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덜어내야 하는 존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야 그릇을 깨뜨리지 않고 담을 수 있을 거라 판단했겠지만, 정작 작은 그릇을 큰 그릇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함께하는 인권도시를 꿈꾸며

지난 2년 동안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가 운영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낯설게 여겨졌던 성소수자 인권이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주민들이 차별의 개념에 눈을 뜨고, 다양성의 가치가 인권도시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적어도 사상누각과 같은 인권도시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주민들이 인권도시의 기둥을 튼튼하게 붙잡고 있으면서 혐오와 차별의 흔들림에도 꺾이지 않게 버티고 또 버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한국 최초의 인권도시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차별은 더 많이 발견되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인권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숨겨야 하는 차별 요소와 유보해야 하는 존엄을 더 많이 확인하는 듯합니다. 혐오세력이 보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조직되고 있고, 소위 전문가를 앞세워 활개를 치다 보니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기 더욱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아마 성소수자 인권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면 '인권도시'는 흠집 없이 조용히 추진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으니까", "혐오세력을 피하기 위해", "드러나지 않게"와 같은 단서가 늘 따라붙습니다. 시급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도 없고,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성소수자 주민을 인권에서 배제시키는 지방정부의 태도는 한 마디로 비겁합니다. 성북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권도시는 혐오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서 배제되어 온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시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권도시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성북 주민들이 성소수자 인권 잔혹사를 기억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더할 때 인권의 힘도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북주민인권선언문에 언급된 "성북구는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다시 '인권도시' 성북을 꿈꿔봅니다.

보문역을 나와서 성북구청 정문 앞을 지날 때 성소수자 인권의 편에 서는 성북구 주민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을은 성북구에 위치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운영위원장이고 성북 성소수자 주민공동체 '성북마을무지개' 회원이며 「성북, 무지개와 함께」 마을잡지 편집위원이다. 띵동 활동 덕분에 성북구의 생활권자 주민으로서 지역과 관계하고 있다. 한 때 성북에 적을 두고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성북구와 다시 연을 맺게 될지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잔잔한 마음

현

지난봄
2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정한 아이들이
한 명씩 교실 앞으로 나아가서는

자신의 마음에는 있으나
교실의 가슴에는 없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

저는
수연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연아, 일 년 동안 고마웠어

봄이고요
개구리가 놀라 뛰어오르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옛날에
개구리알을 먹었다는 풍속 얘기

아이들은 가족들 사이에서
얌전히

옛날 짜장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10가지

이성애 중심주의적 교육,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증오 범죄가 용인되는 사회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비성소수자 시민들은 성소수자와 지역에서 공존하여 살고 싶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라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성북, 무지개와 함께> 마을 잡지는 지역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비성소수자 주민에게, 성소수자 주민과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팁들을 공유합니다.

번역 | 황지성
편집 | 김기민

다음에 보시게 될 팁들은 <STRAIGHT FOR EQUALI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을 번역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그에 대한 별도의 코멘트도 준비하였습니다. (※ 편집 주)

비성소수자로서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지지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발점이 될 아래 제안들을 시도해 보세요.

이성애자로 성소수자 지지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10가지**

1 호명해 주세요
당신에게 성소수자 가족, 친구, 동료, 지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게이, 레즈비언, 바이,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누락시키지 마세요.

2 질문하세요
성소수자 가족, 친구, 동료, 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약어나 전문용어가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반드시 질문하세요.

3 배우세요
웹사이트, 도서, 영화, 그밖의 정보 등을 통해 성소수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과 이슈들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하세요.

4 큰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성소수자를 비방하는 말이나 농담을 들을 때면 듣기 싫다고 말하세요. 당신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가족, 친구, 동료, 지인 그리고 무엇보다 성소수자 당사자가 그 말을 듣고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며 상처받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시켜 주세요. 또한 당신 스스로도 그런 말이나 농담이 은연중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5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아이들에게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 인터넷, 텔레비전 등을 통해 성소수자나 그들의 이슈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는 매일 매일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무비판적으로 학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세요.

6 당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살펴보세요
당신 주변에는 공공연하게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공동체나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공동체를 떠나거나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알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7 당신이 어디에 소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대우를 정책적으로 보장해주는, 성소수자가 설립했거나 성소수자 친화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성소수자 친화적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8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세요
당신이 속한 사교 모임, 직장, 신앙공동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숙고해볼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9 널리 알려요
당신이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독자편지를 보내서 성소수자의 지지자로서 당신이 왜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지지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10 대변자가 되어 주세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가·지방의 선출직 행정수반들과 같은 정책입안자에게 전화하고, 메일을 보내고, 그들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투표권을 가진 비성소수자로서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소수자 지지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10가지**

1 큰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게이, 레즈비언, 바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꼭 종교적인 토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 대우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만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2 토론하세요

공동체의 지도자를 만나서 공동체가 성소수자를 비롯한 공동체 밖 타인을 보다 더 환대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3 참여를 독려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초대해 보세요.

4 정보를 제공하세요

성소수자 관련 서적이나 영화 등을 교회 도서관에 비치해 보세요.

5 행사를 기획해 보세요

영화 보는 날 같은 행사를 만들어 <바비를 위한 기도 Prayers for Bobby>, <For the bible tells me so>, <Through my eyes> 등과 같은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6 강연자를 초청하세요

사람들이 성소수자와 신앙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강연자를 초청해 발표를 청해 보세요.

7 변화를 모색하세요

평등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교회 정책을 지지하고, 다른 정책들이 동일하게 나아가도록 촉구하세요.

8 요청하세요

당신의 목사님이 동성애자 부부를 위해 결혼식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요청해 보세요.

9 사람들을 교육하세요

종교 공동체 안에 어떤 동료나 그룹들은 포함되고 또 어떤 이들은 배제되었는지를 교회가 알도록 교육하세요.

10 설교하세요

신도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한 방법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다루어보세요. '성소수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혐동성애·반성소수자 분위기가 팽배한 국내 교회 집단 내에서 사전 준비 없이 성소수자 인권지지 발언을 하거나 종교의식에 성소수자를 초대하는 것, 동성 결혼 예배 요청 등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성소수자 지지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10가지'는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동료를 확보한 뒤에 실행 여부를 고민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국내에도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회 공동체 또는 신앙인들의 모임이 존재하니, 가능하다면 이곳을 방문하여 활동해 보시고 신앙을 찾는 성소수자 지인에게 추천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길 찾는 교회, 섬돌향린교회,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등 - ※ 편집 주)

「STRAIGHT FOR EQUALITY」 프로젝트란?

1972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현재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소수자 가족 및 지지자들의 단체 <PFLAG(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성소수자를 지지하고자 하는 비성소수자 집단에게 체계적인 정보와 교육을 온/오프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ww.straightforequality.org
(내용 출처)



황지성은 성북구 성소수자 주민공동체 모임 '성북마을무지개' 회원이며 「성북, 무지개와 함께 마을잡지」편집위원이다. 성북구 토박이로 살았고, 더 퀴어한 성북의 오늘을 같이 그려나가고 싶다.

新 가족의 탄생 : 우리는 '따로 또 같이' 산다

'성북마을무지개' 사람들 이야기

글 · 크리스 / 사진 · 낙타



'성북마을무지개'의 활동 거점공간인 <동네공간>

참으로 각박한 현실이다. 국가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 무당의 손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버렸다. 비선실세를 통한 측근정치가 난무하고, 시민들의 반발에는 '가만히 있으라'며 무차별적 폭언·폭행을 가한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분에게는 '병사(病死)'라는 정체불명의 사망원인을 갖다 붙이고, 급기야 유족 동의 없는 시신 탈취 시도까지 서슴지 않는다.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하루에도 수십 번 터지는 정계비리 사건은 이제 신물 나는 뉴스다.

이렇게 찬바람 부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웃의 어려움이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 순간, '같이 함께 해보자'는 마음으로 문을 연 사람들. 성 정체성/성적 지향의 차이를 떠나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가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니 뜻이 모아지고 열매가 하나둘 맺힌다. 올해 첫 공동 작업으로 '마을잡지'까지 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바로 성북구에 거주 혹은 생활하는 성소수자 주민공동체 모임인 '성북마을무지개' 사람들 이야기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성북마을무지개'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한 사업이 무산된 위기 속에서 피어난 꽃이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던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설립이 보수 개신교 세력의 반발로 결국 예산 불용 처리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주민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 물론 그 국면이 지난 지금이야 차분하게 그때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의 장면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찌릿해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성북구청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구청장이랑 면담했던 자리가 사건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했고, 사건 관련 지난한 과정 중 가장 치가 떨리는 순간이었죠. 그때 느낀 건 내가 아무리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커밍아웃도 진즉에 해서 많은 분들이 알지만, 결국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만 나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혹은 지역행정과 연계되는 지점에서 성소수자인 나의 존재가 인식되거나 의미 있고 비중 있게 다뤄지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나는 '1표'에 불과하고, 귀 기울이며 살펴볼 만한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 기민

반면 자신들의 입장을 잘 드러내는 일부 공동체의 조직적인 행동 때문에 공직자의 마음은 갈대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성북구청장은 우리의 권리 수호의 목소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주민들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앞으로도 이어질 비슷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는 눈물로 호소하고 하소연하며 상황이 끝나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 지역 내 성소수자 공동체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출발하게 된다. '우리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쉽지 않지만 운명적인 선택이었다.

그 당시 같이 결합해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성소수자 주민공동체 같은 조직이 시작점부터 있었다면 그때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지역 안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들의 모임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 기민

주민참여예산 사업 무산 위기로 인한 활동 당시 저는 지속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고, 막판에 구청에서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결합했거든요.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해 12월 초 서울시 인권헌장 무산으로 인한 무지개농성을 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구청으로 와서 도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큰 충격과 반성을 느꼈어요. 시청에서는 활동가들이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못해 미안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곤 했는데, 성북구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인데 이렇게까지 와서 활동해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 미안한 마음도 생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 활동이 장기

적으로, 정부나 구청 상대의 싸움만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성소수자 이슈를 발굴해내고 알리는 작업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됐어요. | 지성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불용 규탄 기자회견

사건 발생 후 9개월 만에 이뤄진 성북구 성소수자 당사자·지지자 모임 결성을 위한 준비회의(Rainbow Meeting)를 통해 '성북마을무지개'는 매달 정기모임을 가지며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그 과정 또한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안 좋은 일들이 여기저기 빵빵 터지는 현실에서, 사건 하나가 시발점이 되어 사람들을 모이고 조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안 해본 사람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해본 사람은 더 잘 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건 이후 9개월여 동안,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모임의 구심점을 찾는 작업은 사건 평가 및 점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계속됐다.

초기에는 사업 불용 사건을 거쳐 성북구 지역단체들과 함께 할 때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가 다 섞여 있다가, 이후에는 당사자와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형태로 간 것 같아요. 당사자들도 당사자 모임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지하고 연대해주셨던 분들도 그런 모임이 꼭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죠. 사실 당사자 조직이 빈약한데 연대로만 그 간극을 채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 기민

'성북마을무지개'의 또 다른 고민은 모임 구성원의 특성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당사자와 지지자가 함께 섞여있는 모임으로 할지, 아니면 성소수자 당사자로만 구성된 모임을 먼저 만들고 후에 지지자도 연대하는 형태로 만들어갈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일단 당사자 모임으로 가고, 그게 중심이 돼서 필요할 때마다 연대활동을 하자는 식이었지만, 어쨌든 양쪽 다 지지자를 염두에 두고 모임을 꾸려나가려고 했던 건 공동체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아니었다 싶다.

회원 구성 자체는 그렇지만, 지금 모임의 색깔이 '비성소수자는 연대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기모임 중에 자신을 명확히 정체화 할 수 없었던 어떤 분이 오셨었는데, 이걸 계기로 (자신 정체성의 불명확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발적인 모임이긴 해도 누군가는 날짜나 장소 잡고 모여보자고 계속 끌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낙타, 기민 두 분이 있었던 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 지성

하긴, 처음 모임 오신 분에게 당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웃음) | 기민



당사자와 지지자 사이, 연대의 끈

사람 사는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성소수자 또한 모든 곳에 존재한다. 올해 총선을 대비해 진행한 '평등을 위한 한 표 Rainbow Vote'에서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했을 정도로 성소수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서울시 전체 레인보우 유권자 2,726명 중 성북구 165명(6%)으로 총 25개 자치단체 중 3위), 결국 주민참여예산 불용 사건 후 물 흐르듯 이어진 당사자·지지자 모임은 10여명이 모여 자조모임의 성격을 띠게 됐다. 서로 모여 각자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도 해보면서 머리를 굴리다보니 나오게 된 게 바로 '같이 지역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걸 찾아보자'였다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마을잡지 만드는 사업을 제가 냈는데 선정이 된 거죠. 이미 저는 성북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하며 마을잡지를 내고 있어서 친숙하기도 했고요. 사실 면대면으로 만나서 주민들과 교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커밍아웃 여부도 그렇고,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반면에 글은 필자의 존재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서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했어요. 마침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사업 공모를 하기에 냈는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무척 궁금하다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고 사업에 선정됐죠. | 기민

얘기한 대로 올해는 특히 마을잡지 발행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안건을 가지고 모임을 진행하기보다 그냥 편하게 같이 만나 밥 먹고 사는 얘기 나누는 걸로 가져가고 있어요. 또 그와는 별개로 잡지 편집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편집회의를 사업 추진과정에 맞춰서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 지성

물론 공동체가 생기고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목적을 위해 연대하는 건 꼭 필요하지만, 반드시 모든 일에 함께 해야 한다거나 강제로 모임을 매번 나와야 한다는 등의 분위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밀고 나가는 결사체 성격의 모임이 아닌 이상, 더군다나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 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한다는 공동체 특성을 생각하면 느슨한 운영 가운데도 모임이 계속 이어지는 것 또한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지금은 그냥 서로 친분을 가지고 지역 안에서 오고가며 교류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모임에 못 온다고 해서 왜 못 오냐고 물어보거나, 누군가에게 일을 떠맡기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모임의 구성원들은 매달 회비를 내고 있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일들은 제가 맡아 하고 있어요. | 기민

그리고 잡지 만드는 와중에 필자섭외를 추진하다 보니 나름 문화 활동 하시는 분이 이 동네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원고 청탁하는 것보다 마을에 이런 모임이 있으니 같이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며 편안하게 잡지 제작 활동에 결합해 주십사 얘기하는 자리로서 활용하기도 해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성북구 내 단체인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이 매개체가 되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 지성



'성북마을무지개' 사람들과의 인터뷰

거주하는 지역 기반 공동체의 또 하나의 묘미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모임에 있던 누군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레 나오지 않게 되고, 반면 다른 마을에 살던 어떤 사람이 성북구로 오게 되면 모임에 합류하기도 하는, 유동적인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임의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대표성 없이 회원들만 소소히 모여 일을 꾸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마을미디어사업 신청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대표자 3명이 모여 협약서 서명과 기타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기에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다고 그들은 고백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자연스레 지지자와의 연대가 이루어졌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기본이고, 아무래도 실무자인 저랑 편하게 수시로 만나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려는 활동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가능한 분이어야 했는데, 딱 한 명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대표자 중 1인 역할과 함께 지금 마을잡지 편집위원장도 부탁드렸어요. 이전에 출판사에서 잡지 제작

경험도 있고,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마을관련 활동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적격이었죠. 기존에 알고 지냈던 시스젠더 이성애자이지만, 지지자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 기민

또한 지역에서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대사회적 커밍아웃의 일면인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의지와 힘이 뒤따라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또한 지역기반 활동의 한계이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엿한 주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기분이 들 것 같다. 자기노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가 사는 곳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참여 여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만 하더라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꼭 필요한지가 뚜렷해진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고, '성북마을무지개' 사람들 또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배려 및 소통을 통해 함께 하려는 준비가 돼 있었다.

만약에 잡지 발행이 끝나고 이제 마을잡지 편집위원 모임에서 여기 '성북마을무지개' 모임으로 넘어오라고 했을 때, 본인의 정체성을 오픈해서 마을 활동에 같이 결합할 수 있겠다고 결정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실 거고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나 지지자 구분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서포터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웃음) 아무튼 아직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배려하고 있어요. | 지성

첫 공동작업, 마을잡지가 닫으려 하는 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성소수자 활동은 어찌 보면 무궁무진하다. 각종 마을행사나 전시회, 마을미디어 활동 및 간담회, 심지어 마을퍼레이드 등 생각만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인다. '성북마을무지개' 사람들 또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차근차근 하나씩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재밌는 건 최근 성북구에서 성소수자 관련 행사나 이슈가 꾸준히 있었다는 점이다.

2015년에 있었던 '성북무지개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불용 사건을 평가·점검하고 후속 작업으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서명 받는 걸 포함해 함께 하시며 지지해주신 단체들이 이 흐름을 계속 가져가면 좋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행사예요. 당시 행사를 꾸린 연대체인 '성북무지개행동'에 저희 '성북마을무지개' 사람들도 함께 했고요. 구청의 만행에 대해서 알리고 행동하는 목적으로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취지였어요.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깨닫는 계기도 됐죠. (웃음) | 지성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가 마을에서 열리기도 했지만, 주민들을 좌절시킨 일도 여럿 있었다. 작년 6월 '띵동'에서는 장수마을 주민협의회과 함께 한양도성 인근마을 주민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 장수마을에 있는 마을박물관에서 성소수자 관련 전시회를 열고자 했지만, 서울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자 시민인권보호관이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인권교육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슈는 2014년 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무산된 후 그 대안으로 성북구 인권위에서 성북구청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라는 권고안을 냈거든요. 이에 구청 산하기관인 성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5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인터뷰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물에 지원처로 성북문화재단이 기재된 것을 안 재단 측이 교회 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다며 실태조사 사업 담당자에게 기관 이름을 빼달라고 항의한 일이 있었어요. 결국엔 이런 사업에 성북구청 산하기관이 관여했다는 걸 동네방네 알리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만행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사업비 다 반납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죠.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다는 걸 확인한 씁쓸한 순간이에요. | 기민



'2015 성북무지개한마당 : 함께 사니 참 좋다' 진행 모습

지난 8월에 있었던 '성북구 청년·대학생 성소수자 집담회'는 성북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들과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 지역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비성소수자에게 줄 수 있는 생활 팁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진행한 모임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당사자성과 현재성에 기반한 성소수자로서의 이야기를 쏟아냈다고 한다. 이 또한 지역 거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인 동시에, 세대와 성별을 넘어 함께 어

우려져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본다.

모임 자체도 서울시NPO지원센터로부터 지원 받았고, 장소도 상징적으로 성북구 인권센터가 입주해있었던 안암동 주민센터로 잡았어요. 성북구에서 안암동 주민센터를 인권 친화적인 공공청사로 만들고자 리모델링을 했었고, 처음에는 인권센터도 안에 입주해 있었거든요. 지금 인권센터는 다시 본청으로 들어갔지만, 상징성은 남아 있으니까 예약을 시도했는데 덜컥 된 거죠. 아무런 비용 들이지 않고.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에서 성소수자들이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전례를 남겼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죠? (웃음) | 기민

생각보다는 지역 기반 활동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지역에 살면서 활동하는 거랑 잠시 머무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생활권자와 거주자의 차이도 있었고, 게다가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서 꼭 본인의 지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구요. 그래도 각 학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나 곧 나올 마을잡지 같은 걸 속해 있는 곳에만 배포하지 말고 마을도서관, 각 기관 등에 놨으면 하자는 얘기 등이 나와서,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확인한 자리였죠. | 지성



'성북구 청년·대학생 성소수자 집담회' 모습

점점 지역이나 마을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 공간의 활용과 생계에 따른 이동이 자연스러운 시대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내가 어디 있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유동성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태에서, 그럼에도 지역기반 운동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역동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큰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제 올해 주력사업이자, 공동체의 첫 공동작업인 '성북, 무지개와 함께 마을잡지'는 11월 발행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논의 끝에 만들어보기로 한 마을잡지의 모습은 어떨지, 초반에 들어본 탄생 배경 외에 그 동안의 제작 과정과 소회가 궁금해졌다. 사실 요즘 마을잡지가 생소한 건 아니고, 성북구에서는 특히 기민님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성북동 마을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지역 매체로서의 마을미디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을잡지는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 걸까?

우리 역량을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일 하면서 지역 활동하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지만 어떻게든 잡지는 나올 거구요. '띵똥' 등을 통해 얘기 들어보면, 2014년말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액션, 기자회견 등 우리 성소수자가 이 성북구에 살고 있다는 걸 알리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고, 변화는 힘들다는 걸 느껴요. 그럴수록 뭔가 계속 더 해나가야 될 수밖에 없겠다는 자극은 계속 받고 있어요. | 지성

저랑 같이 지역 활동 하는 분들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혼인 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을 해주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 결혼선언문에 저에게 성소수자로서 어떤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모두를 위한 결혼을 지지하고,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는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부탁해서 실렸고, 결혼식장에는 무지개 현수막을 걸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그와 관련된 얘기도 이번 잡지에 담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주택의 입주자에게도 글을 부탁해 성소수자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싣기도 했어요. | 기민

어렵사리 시작한 마을잡지, 그 안에는 성북구에서 일어난 성소수자 관련 이슈들과 비성소수자를 위한 인권가이드, 성소수자 관련 생활정보, 당사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당사자인 성소수자와 지지자인 비성소수자의 이야기가 적절하게 들어간다고 한다. 마을미디어야말로 그 특성상 만드는 사람도 지역 주민이고, 보는 사람도 지역 주민인 만큼, 만들면서 서로 간에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관계 맺음과 동시에 밖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만간 세상에 얼굴을 내밀 결과물을 기대해보기로 한다. (많이 찍지는 않을 예정이라 희소가치가 있다는 소문이!)



기민님이 증인을 선 지인들이 직접 준비한 마을 결혼식에 내걸린 현수막

주민공동체가 바라는 무궁무진한 길

'첫 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처럼, 함께 만들어낸 첫 결실을 앞두고 있는 이들. 잡지 제작이나 마을활동 자체가 처음이라 새롭고 소중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현재 상황에 맞게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뭔가 무리하게 추진한 건 아닌지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큰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성북마을무지개'가 나아갔으면 하는 길을 물어보았다.

가깝게는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성소수자 관련 도서를 구입 신청 및 배치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작년에도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일단 접근하기 쉽고 당장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언젠가는 이 동네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작업으로 퍼레이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과제고 꿈같은 얘기이긴 한데, 망원동 '무지개집'이 생겼듯이 쉐어하우스나 공동체주택도 생기면 좋겠고, 따로 살되 서로 인접한 집들에 거주하면서 정말 이웃에 성소수자가 살고, 다른 이웃에는 비성소수자가 사는, 삶의 환경 자체가 성소수자 친화적인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으면 해요. | 기민

사실 마을잡지 만드는 걸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 하나만 하기에도 너무 벅차서… 조금씩, 하나씩, 뭔가 소소하게, 또 천천히 해보자고 마음먹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성북구에 계속 살 것 같다는 거죠. [웃음] 성북구에서 태어나 살다가 독립도 성북구 내에 있는 임대아파트로 했고, 그래서 성북구를 못 떠나는 상황인거에요. 공부나 일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서울시나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다가 이런 마을 모임도 갖고 '띵동'에 자원 활동도 시작했는데, 좀 더 배워보고 싶고 잘 꾸려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구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같이 해 나가면서 키워봐야 할 것 같아요. | 지성

'성북마을무지개'가 속한 성북구 내 연대체인 '성북무지개행동'의 2015 아이다호 행사 참가 모습





결국에는 각자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 위에서 '마을잡지 제작' 같은 공동의 작업이 구심점이 되어 작은 꿈을 하나하나씩 키우고, 따로 또 같이 살아가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주민공동체로서 '성북마을무지개'를 더욱 빛나게 하는 포인트라고 여겨진다. 각자의 존재들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환경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안전함과 평안함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가족/공동체의 기능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면, 주민공동체 또한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각자가 속해 있는 원가족의 테두리나 기존 소속단체의 이념을 뛰어넘어, '성북마을무지개'라는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또 다른 무언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공동체라는 말 자체도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평생 없어지지 않는 정체성 중 하나였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보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위의 구속력이나 표식이 점점 더 약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지 않고 온전히 개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거든요. 더 이상 예전의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가족이라는 존재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간극을 공동체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치와 지향점, 목적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이든, 아니든 공동체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 기민

이미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자신이 고립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찾는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넘어,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다면 개인의 삶에 있어 내용이나 방향 또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민은 말한다. 반면 지성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공동체라는 구성은 좋은데, 모임의 유지나 지속적인 운영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는 아직 회의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동체 안에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서로 부딪혔을 때 이상만큼 잘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건 공동체만 으쌰으쌰해서 될 것도 아니고 사회 인프라, 구성원들의 의식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희망은 당연히 갖고 싶죠. 이제 마을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난 분들이 우연히도 보면 기존부터 활동하던 마을활동가였어요. 평생 살았지만 사실 몰랐던, 마을에 관한 다양한 역동들을 듣고 나니 그 전과 후의 마을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요. '띵동'이라는 단체가 주는 느낌이 사뭇 다르게 다가오기도 해요. 이전에 내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 성북구가 이제는 그 성북구가 전혀 아닌 거죠. | 지성



'성북마을무지개' 사람들과의 인터뷰

바쁜 삶 가운데 우리는 막상 가까운 주변에 관심을 두기가 힘들지만, 조금만 더 눈을 돌려보면 다르게 다가오는 마을과 이웃의 면모들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이다. 마음가짐에 따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그리고 그러한 시선을 모아 모임을 만들어 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견고하게 이어졌으면 하고 바랐다.

어딘가에 존재할, 주민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되게 지난한 과정일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도 않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데요 뭐. (웃음) 같이 마음을 모으고 뭔가 해나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 근데 중요한 건 시작했을 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요.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해나가면 좋겠어요. 초심을 유지하면 가끔은 모임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계속 갈 것 같거든요. | 기민

제가 은평구에서 직장생활 할 때 봤더니, 마을활동이 엄청 활발하더라고요. 살림의료협동조합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발판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엮고 조직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우리 마을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성북마을무지개' 활동을 하는 데에는 그런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과 다양한 네트워크가 좋아 보였고, 그래서 롤 모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은평구에서의 관찰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성북구에서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하거든요.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서로 배우며 함께 커 가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소수자라는 모토를 가진 모임이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에 다 하나씩 있으면 되게 다른 느낌일 것 같아서요. 같이 합시다! | 지성

두 사람의 기대처럼, 지역 곳곳에 비슷한 모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들이 이런 모임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살아온 환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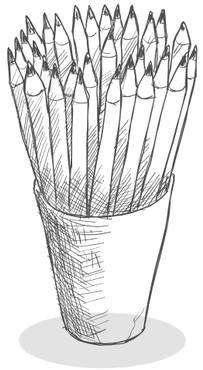


이 글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이하 '가구넷')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新 가족의 탄생〉 인터뷰 내용이며, 가구넷 및 친구사이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크리스는 친구사이 회원이며, 낙타는 친구사이 상근자이다.

이웃들이 보내온 편지

편집부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가 만드는 마을 잡지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삼선동 배씨

전에는 내 주변엔 성소수자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친구는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기에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도 성북에 사는데 누구든 함께 살 수 있는 성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 정릉동 참참

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든 다양한 삶들이 모여 세상을 무지개 빛으로 물들이기를. 상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대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정릉동 이파람

차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질 때까지, 세상에 사람을 구분하는 말이 '너'와 '나', 그리고 '우리'만 남을 때까지, 1등의 의미보다 평등의 의미가 더 소중한 날이 올 때까지, 그 누구도 자기의 초를 제 숨으로 끄지 말자. 나는 나를 사랑하자. 살아남자. / 강북 수유동 최곰

동그라미에는 앞과 뒤가 없다. 차별하면 후진, 평등하면 선진. 우리는 한 붓으로 그은 연결된 사람들! / 삼선동 제월

Siri가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대한 민족이 이 정도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아서야… / 성북동 이준호



발행일

2016. 11. 30

발행처

성북마을무지개

편집 · 구성

<성북, 무지개와 함께> 마을잡지 편집위원회 (깡통, 정율, 황선영, 황지성, 현)

편집디자인

할매

실무

김기민

일러스트

designed by freepik.com

후원

김찬영, 달수, 성북마을무지개알랍, 유지혜, 이인섭, 차돌바우,

천정남, 최나현, 최승주, 홍수만

지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마을무지개

이메일 sb.village.rainbow@gmail.com

페이스북 http://facebook.com/SB.rainbow

트위터 http://twitter.com/sbrainbow